

유럽의 자치단체 혁신역량 강화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더블린(Dublin)

켈틱타이거로 부상하는 아일랜드! 외자유치를 통한 아일랜드의 성공전략

2005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Press & PR Office, IDA Ireland Wilton Park House, Wilton Place, Dublin 2
• Elaine Healy
• Tel : +353 1 603 4154

아일랜드

-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일랜드는 영국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다. 한반도의 3분의 1크기(7만283km²)에 약 392만 명(2002년)의 인구를 가진 아일랜드는 1922년 800년간 지배해 온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나, 수상이 실권을 갖는 내각책임제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는 더블린으로 정치·경제·해운의 중심지이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영어와 Irish어가 공용으로 쓰이며 전체 인구의 93%가 가톨릭 신자이다.
- 아일랜드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3년 현재 3만9천 달러로 영국을 추월했고 2000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소프트웨어 수출 세계 제1위국으로 부상했다. 또 인텔이 최신 300mm 웨이퍼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한 곳이 바로 아일랜드이다.



- ‘켈틱 타이거’라는 용어는 1994년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94년 8월 31일에 발표한 아일랜드 경제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아일랜드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주목, 아일랜드를 한국과 대만 등과 견줄 수 있는 ‘켈틱의 호랑이’라는 뜻으로 ‘켈틱 타이거’로 표현했다.

고도성장기의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80~1990년 사이에 3.2%였던 아일랜드의 평균GDP 성장률은 1994년~2000년에는 9%로 높아졌다. EU(유럽연합)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4.0%에서 1.4%로 주저앉았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아일랜드에게 ‘빛나는 10년’이었다. 우리와 비교하면 1980년대에는 우리가 높았지만 1990년대에는 아일랜드가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적은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 1만3,907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98년에 2만 3,422달러로 40.6%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800년 동안 지배했던 영국을 추월했다.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성장전략

- 아일랜드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분야는 의약 부문을 포함한 화학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와 전자부문이다. 2001년 이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했다. 2001년에는 특히 의약부문이 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컴퓨터 부문도 14%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0.3%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실질 수출 증가율 : 아일랜드, OECD, NICs〉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아일랜드	20.0	12.2	17.4	21.4	15.7	17.8	7.4
한국	24.6	11.2	21.4	14.1	15.8	20.5	1.0
멕시코	30.2	18.2	10.7	12.1	12.4	16.0	-5.1
미국	10.3	8.2	12.3	2.1	3.2	9.5	-4.5
OECD	9.5	7.3	11.6	4.2	4.2	11.6	-1.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02

해외보고서

- 아일랜드의 수출증대를 주도한 것은 외국기업들이다. 1980년대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외국기업들은 수출과 고용, 생산 등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수출비중이 높은 화학(의약 부문 포함)과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전자 및 콜라 농축액 등의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다. 그에 따라 외국기업이 아일랜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 1987년에 이미 74%였고 1997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

산탄총 방식의 외자유치 추진

-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이 생긴 초창기에는 어떤 산업이 속한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탄총 방식’이었다. 그에 따라 섬유, 금속, 전자, 의약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했다.
- 그러나 1970년부터 점차 특정 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준 사격’으로 유치방식이 바뀌었다. 조준 사격 방식의 투자 유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유치 대상 산업을 선정한다. 대상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이 가능한 동시에 아일랜드가 경쟁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 대상산업을 정한 다음에는 그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찾아 아일랜드에 진출하도록 설득한다. 대상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 보조금 액수를 놓고 IDA 직원과 협상에 들어간다. IDA 직원은 제공하는 보조금과 외국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을 비교 분석해서 보조금의 액수를 정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망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전자, 소프트웨어, 건강의료 산업, 금융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등이다. 선정된 산업을 보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며(이른바 ‘무게 없는 산업’), 설비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외자유치 성공요인 여섯가지

-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1950년대 말 개방 이후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들은 왜 아일랜드를 선택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다음 여섯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데 별 이의가 없다.
 -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 : 10% (2003년부터 12.5%)
 - 임금·노사안정 : 1987년 사회협약 체결
 - 정책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 : 전략성, 일관성, 서비스
 -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 : EU회원국

-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 : 무료 대학 교육
- 개방과 관용의 문화 : Temple Bar로 상징

외자유치는 계속될 것인가?

- IDA의 CEO인 셴 도건(Sean Dorgan)은 최근 홈페이지에 “Is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 직접투자) necessary in post Celtic Tiger Ireland?”라는 글을 통해 IDA의 향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Yes’이다. 하지만 IDA의 외자 유치목표가 달라졌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전의 ‘고용’에서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의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외자유치의 목표가 된 것이다.
- 과학·기술 분야의 외자유치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 이미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연구 개발센터를 유치하는 일이다. 지난 2002년 9월 5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아일랜드 경협위(US-Irish Business Summit)에서 아일랜드의 마리 하니(Mary Harney)부총리는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공장과 더불어 연구 개발 센터도 설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아일랜드가 과학 기술 분야의 외자유치와 기술개발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21세기에도 ‘켈틱 타이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결

- 아일랜드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은 위에서 제시한 6가지의 가시적인 요인 이외에도 아일랜드 사회 전반에 잠재해 있는 신뢰와 재량권의 부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ZDA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큰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이러한 재량권을 통한 기업 요구에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대응이 외국 기업들에 신뢰를 제공하여 또다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 더블린(Dublin)

해외기업과 자국산업 연계로 'Win-Win'! 아일랜드 기업진흥청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Enterprise Ireland(아일랜드 기업진흥청)

• Glasnevin, Dublin 9
• Gabriel McCarrick, Council Member
• Tel : +353 1 206 6260
• gabriel.mccarrick@enterprise-ireland.com

경제위기의 돌파구 마련

- 아일랜드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서유럽의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아일랜드의 변화 모멘트는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이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호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방화의 길을 걸으며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했다.
- 하지만 아일랜드 경제는 산업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불어 닥친 세계경제의 침체기를 헤쳐 나갈 만한 자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1960~70년대 심각한 노사분규의 여파로 1980년대 초 아일랜드는 경제 침체, 20%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 17%에 달하는 실업률, 높은 국가 부채 등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다.
- 이같은 위기상황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즉시 '국가 재건 프로그램'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가 흥망의 갈림길을 목전에 둔 위기감은 농업 및 정부기관과 기업은 물론 농업·노동조합 모두에게 공히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자연스럽게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위대한 아일랜드 정신

- 아일랜드 정부는 국가 부흥 프로그램을 통해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3년 동안의 임금 인상률을 2.5% 범위 내로 제한하며, 임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득세율을 낮추는 조세 개혁을 단행했다.
- 1~3차 사회협약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 경제 성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분배와 사회적 형평성'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1990년대 후반(5~6차 사회협약)에 서야 다뤄졌다.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무엇보다 기업, 노조, 정부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이른바 '아일랜드 정신'을 낳게 했고, 이는 아일랜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다.

외국기업과 토착기업과의 조화

- 아일랜드 경제의 기반은 외국기업과 토착기업의 조화에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토대는 외국기업에 있으며, 경제성장을 이룬 결정적 배경은 1990년대 적극적인 외국기업 투자(FDI) 유치에 성공을 거둔데 따른 것이다.
- 국내 산업이 취약한 상태였던 아일랜드에게 외국기업 투자는 경제 부흥의 주춧돌이 됐다. 현재 대유럽 미국 제조업투자의 25%가 유럽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 아일랜드에 집중되고 있는 점만 봐도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시 아일랜드 내 특화 산업을 선정, 아일랜드 자국 산업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예컨대,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산업과 연관성이 큰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전자, 컴퓨터, 화학, 제약관련 해외기업의 투자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아일랜드 토착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90년대 이후 생겨난 아일랜드 토착기업은 1만 5000여개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외국기업의 솔루션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동반성장의 중요성

- 아일랜드는 지난 5년간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3년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EU 국가들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88년 110.6%에 달했던 GDP 대비 국가 부채율도 이제는 EU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보고서

-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를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수출국, 최고의 제약 수출국, 주요 전자장비 수출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980년대 국가 부도 위기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자랑하는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아일랜드 정신과 책임분담을 통한 사회 전체의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3 포이스(Pow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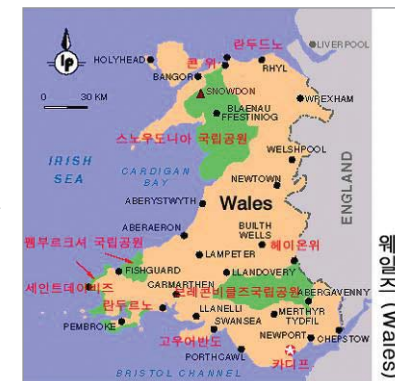
환경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한 폐광지역! CAT(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2005년 10월 15일(토) 오후 2시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 SY20 8 Powys
• TEL : +44 1654 705 950
• FAX : +44 1654 702 782
• Info@cat.org.uk
• www.cat.org.uk

웨일즈의 생태테마공원

- CAT(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는 끝없이 완만한 녹색 구릉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영국의 농촌에 자리하고 있다. CAT는 화석연료와 화학제품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기술, 곧 ‘얼터너티브 테크놀로지(Alternative Technology)’를 제창하고 작은 공동생활체로 출발한 지 약 3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놀면서 환경적인 사고를 익히는 ‘생태테마공원’으로 세계인에게 주목받고 있다.



- CAT는 처음부터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창설자 제럴드 모건 그렌빌(Gerald Morgan-Grenville)씨가 1974년 초목이 무성한 슬레이트 광산의 폐광 터를 빌려 개인 돈을 들이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운영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 그렌빌 씨는 미국에서 머물러 살던 1960년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 운동(Hippie Movement)을 알게 되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연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 몇 곳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운동에 공감하면서도 이상만 앞서고 실천적인 기술과 방법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화석연료와 화학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얼터너티브 테크놀로지’를 제창하고 CAT를 만든 것은 생태적인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구

해외보고서

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CAT는 전체 면적이 40에이커 정도이다. 이 가운데 ‘생태 테마공원’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은 약 7에이커 정도이다.
- 나머지 공간은 숲, 과수원, 밭,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주거지다. 이곳은 처음부터 활동가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에게 공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5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 필립공이 방문하여 사회적 관심을 끈 후에는 일부를 공개하면서 현재의 테마공원으로 발전하였다. 지금은 나라 안팎에서 연간 8만 명의 견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 테마공원 지역은 자연에너지, 이를테면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코너와 이 기술을 응용한 에너지 절약의 집, 자연농법과 자급자족에 바탕을 둔 농업원에 코너, 그리고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에너지로 공원 내 모든 것을 충당

- CAT입구의 경사 엘리베이터는 인공연못에 고여 있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좌우 두 대 사이에 균형 작용과 중력을 합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모두 자연에너지로 충당되고 있다. CAT안의 전력의 대부분은 수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족한 것은 풍력으로 보충하고 있다. 태양열발전은 PV(광전기 · Photovoltaic)를 사용하고 있다. PV 가격이 싸진 10년 전쯤부터 이 발전방식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감광성이 강한 PV는 2~3분마다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고 패널의 각도를 바꾸어 발전효율을 최대로 높인다. 일조시간이 적은 영국 전역에서 이 발전방식이 채용되면 연간 전력소비량의 15%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 ‘바람의 전시관’이라고 하는 풍력발전 코너에서는 50w용의 포터블 크기(Portable size)부터 중형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모여져 있다. 풍력발전기 인근 언덕 위에는 한 대로 CAT뿐만 아니라 듀라스밸리 지역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량 7톤의 15Kw급 대형 풍력발전기까지 있다. 이곳에서 발전된 전기는 모두 제어실로 보내진 다음에 배전된다. 남은 전기는 배터리에 축전한다든가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전력회사로 가는 송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친환경적 자연농법

- CAT 자리는 슬레이트 광산 터였기 때문에 자연토가 아니지만, 슬레이트 조각과 퇴비를 섞어 넣어 유기농 원예에 이용하고 있다. 이 노하우는 마당이 없는 좁은 도회지에서도 할 수 있는 가정

원예부터 자급자족하는 농원에 이르기까지 응용할 수 있다. 온실은 다면체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다면체 구조는 열효율은 그대로지만 표면적을 가장 적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온실 안에는 물의 흐름과 식물을 이용해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활동가들의 식사와 레스토랑 등 CAT 안에서 소비되는 채소도 기르고 있다.

- 레스토랑에서는 공원 안에 있는 밭에서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신선한 채소를 비롯해 무농약과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은 재료들을 쓰고 있다. 신선한 샐러드와 야채수프, 파스타와 쌀을 이용한 음식이 갖춰져 있고 가격도 싸다. 마실 것으로는 각종 허브차와 커피대용으로 보리나 죽순 음료도 있다.

1인당 전기료가 1.8파운드

- 공동체 주택이 있는 단지는 일반 방문객들이 출입할 수 없다. 집은 모두 태양열 · 풍력 · 수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몇몇 집은 지붕 위에 흙을 깔고 풀꽃을 심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인 옥상녹화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 보존하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집안은 대개 거실과 침실로 쓰는 방 두개 정도로 작다. 욕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배설물과 배수는 독자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흘러보내고 고형물은 과일나무와 관목용 거름으로 쓴다. 물론 먹는 채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분은 짚이나 풀로 정화하여 다시 이용하고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비롯해 전기제품들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개개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것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불필요한 스위치를 내려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 공원 안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전력은 수력발전을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태양열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자연 에너지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서 디젤 발전기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연간 디젤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거주단지의 연간 전기요금은 1인당 1.8파운드라고 한다. 영국에서 일반인들이 연간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1인당 약 240파운드라고 하니 절약효과는 매우 두드러진다.

4 런던(London)

투자유치를 위한 신도시 개발 Dockland의 기업특구 조성전략

2005년 10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예정 Think London(런던투자진흥청)

• Chris Orange
• Director of Inward Investment
• Tel : 020 7540 5509
• corange@thinklondon.com

슬럼가에서 신무역 중심지로 변한 도클랜드

- ▶ 위치 : 런던도심 동측 8km(템즈 강변)
- ▶ 면적 : 666만평
- ▶ 계획인구 : 22만 명
- ▶ 인구밀도 : 55인/ha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관문이었던 런던 도클랜드(London Docklands), 대영제국의 쇠락과 함께 런던 주변의 대표적인 슬럼지역으로 전락했던 도클랜드가 이제 세계의 신무역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 80년대 이후 도클랜드는 밀톤 케인즈와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도클랜드 신도시는 런던의 관광명소인 타워브리지에서 동쪽으로 템즈강을 끼고 벡턴 지역까지 이어진다. 타워브리지의 서쪽인 기존 시가지는 수백 년 된 주택, 호텔, 성당, 왕궁 등이 들어선 전형적 고도의 모습이나 반대쪽 도클랜드는 현재 고급 주택지역 및 초현대식 빌딩밀집지역의 모습을 하고 있다. 런던 도클랜드는 ‘재개발’ 방식을 통해 조성된 신도시다. 슬럼가의 모습이었던 도시 주변 낙후지역을 현대적인 도시로 개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 우리나라처럼 이곳저곳에 무계획적으로 고층아파트만 지어대는 ‘난개발’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땅을 수용,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빈틈없는 초기계

획과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전체면적 6백60만평(2천2백ha)으로 여의도(89만평)의 7배가 넘는 이 대규모지역을 무리없이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 도클랜드의 개발이념은 ‘낙후되고 과밀한 도시주변지역을 개조, 런던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집단재개발을 통해 주거 업무 상업기능을 이상적으로 결합,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창출해내는 것은 물론, 도시생산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 영국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 착수에 앞서 78년 도시재개발법(Inner Urban Area Act)과 80년 지방정부 도시계획토지법을 특별히 만들어 개발 대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했다. 81년에는 도클랜드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출자기구 LDDC(런던도클랜드개발 공사)를 출범시켰다.

개발현황 및 도시환경

-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도 조성지구인 Enterprise Zone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금융, 정보 등의 중추 산업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나 위락·레저·상업시설을 충실히 정비하여 매력 있는 직주 근접의 복합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 각종 통신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 도심(city)과 도클랜드 내 업무지구간 텔레포트로 조성하였고, 도심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폭적으로 교통기반 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신교통시스템(Docklands Light Railway)을 도입하고 유럽의 주요도시를 직결하는 런던시티 공항을 건설하였으며, 역사적 경관의 보존과 신도시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 전체 사업지구는 Wapping 지구, Surrey Docks 지구, Isles of Docks 지구, Royal Docks 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된다.
- Wapping 지구는 World Trade Center, 타워호텔, 백화점, 식당 등 상업지구이며, Surrey Docks 지구는 London Bridge City라 불리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기능, 단독주택지구를 정비한 전문식당가, Pub, 레저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 Isles of Docks 지구는 재개발의 중핵지역으로 일부를 기업유도조성지구(Enterprise-zone)로 설정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식으로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뉴욕, 도쿄의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위성통신설비를 보유한 Canary Wharf가 있으며, 국제 금융센터로 중심으로 24시간 가동하는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 수변공간을 이용한 쇼핑센터, 수상스키, 윈드서핑, 낚시, 수상식당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Royal Docks 지구는 런던시티 공항을 통해 유럽 각 도시와 연결된다. Business Park(10만평), Exhibition Center(10만평), West Silver Urban Village(10만평), Royal University College(3

해외보고서

만평), 상업 및 레저시설(10만평)이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예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의 표본

- 8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된 도클랜드 뉴타운은 민자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의 표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투입된 총 80억 파운드 가운데 63억 파운드가 민간자본이며 이중 64%인 41억 파운드가 외국기업 자본이다. 민자유치는 이곳을 국제적인 무역중심지로 성장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와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세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우대지원조치에 힘입어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이곳에 진출, 땅을 매입해 대형 업무용건물을 지었다.
- 81년 이후 지금까지 1천4백 여개의 국내외기업이 이곳에 새로 진출했으며 일자리수도 81년 2만 7천2백 개에서 지금은 7만 여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곳의 완벽한 교통망은 이 같은 대규모 민자유치가 어려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 정부보조 및 토지분양으로 조성된 17억 파운드의 상당부분이 경전철, 도로 등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됐다.
- 도클랜드를 동서로 가로질러 런던도심과 동쪽 끝 주거지역인 벡턴 지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돼 곧바로 도심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을 갈아타면 런던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

자족기능의 활성화

- 특히 이곳에 법인을 세워 기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10년간(82-92년) 일종의 지방세인 사업세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NCC ABB 등 스웨덴업체를 비롯, 일본의 KDD, 노무라연구소, 미국의 모건 텍사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덴마크의 이세프 등이 개발에 참여했다. 포리터스다이제스트 유럽본부, 버클리은행, 시티은행 등도 새로 진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스웨덴기업이 이곳에 약 16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을 비롯, 일본기업이 남향개발 등에 5억 파운드, 쿠웨이트가 런던 브리지시티개발 등에 2억 파운드 등을 투자했고, 캐나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기업 등의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특히 주택건설에 중점적으로 참여했고,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기업도 이곳에 유럽기지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기업들의 진출이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시킴으로써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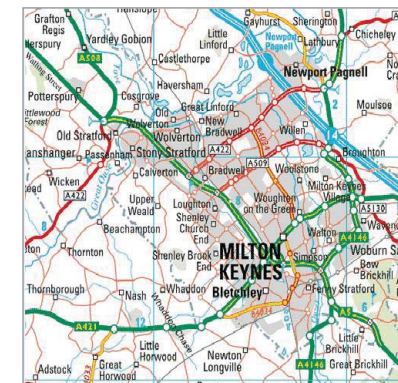
5 밀톤 케인즈 (Milton Keynes)

인간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 신도시 개발의 모델, 밀톤 케인즈

2005년 10월 17일(월) 오후 3시

1967년 개발계획 최초 입안

- 런던의 북서쪽인 북 버킹검주에 들어설 신도시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1962년 州의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보고서 발간과 청문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가던 이 계획은 마침내 1967년 신도시(New Town)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약 9,000ha의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예정지역내 조그만 마을이름을 따라 '밀톤 케인즈(Milton Keynes) 개발'이라 명명되었다.



- 이후 곧바로 밀톤 케인즈 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개발공사는 그간의 구상들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반세기 이상을 생각하는 개발

- 주택의 다수는 지역당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다. 1971년 이래 개발공사가 주택개발 분야의 주요 발주자가 되어 왔으며, 민간부분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위치와 범위, 질적 수준 등 많은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도시설계상의 주요 인자인 동시에 가장 많은 토지를 요하는 부문이며, 도시와 주민간의 밀접한 접촉점의 역할,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해외보고서

- 밀톤 케인즈 주택 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불과 수년 만에 전체 주택들이 거의 들어서 는 일반적인 신도시들과는 달리 적어도 반세기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개발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급격히 번성했다가 쇠퇴하는 빈민가를 만들지 않고, 거주자들이 원하는 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교육·유통 문제 우선 해결

- 주거나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특히 밀톤 케인즈를 개발함에 있어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일자리였다.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은 결국 지역 경제를 창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 레저,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로 이어져 도시에 대한 매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고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개발 당시부터 영국은 수공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감소하는 반면, 전문직 및 기술직 기타 사무직의 고용수요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거주자들의 직업선택 폭을 넓히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밀톤 케인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시설들과 함께 뛰어난 유통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즉 30년 후인 1990년대에 이르러 거주민 중 약 13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 고용인원이나 근무상황, 산업의 확장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적용시켰다.
- 현재 밀톤 케인즈의 고용지구 내에는 브리티쉬 텔레콤(BT), 제록스(Xerox), 미놀타(Minolta), 코카콜라(Coca Cola), 벤츠(Mercedes-Benz), 폭스바겐-아우디(Volkswagon-Audi) 등 3000 개가 넘는 국내외 우량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쇼핑 및 상업서비스

- 밀톤 케인즈 개발 계획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다양성과 융통성은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되었다. Bletchley, Stony Stratford, Wolverton 등의 기존 상가들은 새롭게 들어선 New Bradwell 등의 상가와 함께 신도시 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보행동선과 이어져 상업시설로서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이 시설들은 한 장소에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밀집되어 있으며, 대규모

상가만이 아닌 전문화된 중·소규모 상가들도 끌어들여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통 및 운송체계

- 밀톤 케인즈 개발공사가 세운 교통·운송계획은 공공 교통수단 및 개인 교통수단이 시 전역에 무리 없이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톤 케인즈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동선은 지역 또는 전국적인 패턴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도로의 신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진행해 나갔다. 그 결과 중거리 교통량을 소화하는 M1의 부하와 많은 시내 발생 교통량을 처리하는 입체교차로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 한편 총연장 16Km에 이르는 4차선의 입체 도시고속도로가 시의 남·북 지역을 연결시켰으며, 시내 주요 간선도로들이 약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총연장 160Km정도가 놓여졌다. 이 도로들은 계획구역 내 중앙의 주력도로로서 각 교차지점들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통합 교통신호로써 제어된다. 이밖에 편도 1차선의 도로가 주로 외곽지역에 배치되었다.

환경성 평가

- 밀톤 케인즈는 자연환경과 도시의 기능적 요구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탄생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공간의 처리와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도 환경성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와 함께 반드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잊지 않고 있으며, 기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연구와 홍보 활동, 또는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밀톤 케인즈의 기본 개발 방향은 21세기 새롭게 도래한 Green Round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분명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6 캠프리지(Cam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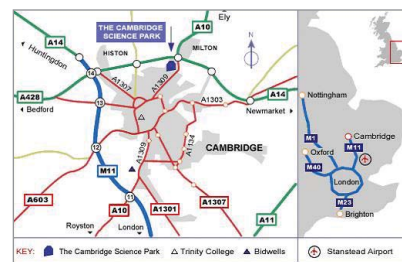
첨단산업의 지리적 집적지 Cambridge Science Park

2005년 10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University of Cambridge

- Patrick Horsley
- 46 Royston Road, Harston Cambridge B25NH
- TEL : +44 1223 874199
- M.B : +44 7931 570856
- enquires@cambridgevisits.com
- www.cam.ac

잉글랜드 동부지역 성장의 견인차

- 캠프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캠프리지시(City of Cambridge)를 중심으로 반경 약 15마일 내에 입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집적지를 일컫는다. 행정구역상으로는 Cambridgeshire와 Peterborough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리지시는 캠프리지 시, 동부 캠프리지셔, Fenland, Huntingshire, 남부 캠프리지셔 등의 하위 지역들을 포함한다. 2001년 현재, 캠프리지시의 인구는 약 55만명에 달하고, 피터버러는 15.6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을 포함한 캠프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인구규모는 약 70만 명을 상회한다. 또한, 캠프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잉글랜드 동부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캠프리지 사이언스파크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1970년대 이후 정보기술, 전자,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산업, 과학기기 등의 첨단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거나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집적이 가장 두드러지며, 캠프리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생산보다 연구개발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서비스업도 발전하여 지역의 주요한 성장기반이 되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탄생과 발전

- 1970년대에 캠프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가 캠프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캠프리지 사이언스파크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에 의한 것이었다. 1978년에 이 지역의 첨단기업 수는 20 여개에 불과하였다. 바클레이즈(Barclays)은행은 이러한 기업들이 클러스터의 핵심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캠프리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은행 직원들은 창업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각종 기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렇게 해서 1985년까지 첨단기업의 수가 360여개로 증가하였다. 한 컨설팅 기업(Segal Quince & Wicksteed)은 그 당시 이 지역에서의 첨단기업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캠브리지 현상-대학도시에서의 첨단기술기업의 성장(The Cambridge Phenomenon - The Growth of High-Technology in a University Town)」(1985)이다. 캠프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에는 약 1,6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산학연 네트워크

- 캠프리지에는 세 개의 대학이 있다. 캠프리지대학, 앵글리아 폴리테크닉 대학, 개방대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캠프리지대학은 영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연구중심대학이고, 영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1만5,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구와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 캠프리지대학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었다. 현재 이들은 약 2백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캠프리지대학은 이러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핀오프 기업을 위한 대학기금을 운영하고, 차세대 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캠프리지 앙트레프레너십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캠프리지 지역에는 민간, 공공, 교육부문을 엮어주는 수많은 국제적인 앙트레프레너십(창업) 및 혁신관련회의가 열린다. 캠프리지 기업회의, 캠프리지 기술교류회, 캠프리지 첨단기술 중소기업협회, 동부지역바이오기술협회의 연례교류회 등 수많은 혁신관련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다.
- 이들은 캠프리지 지역에서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충족하고 상호간 공동학습을 촉진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해외보고서

- 창업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초기 성장단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캠브리지 지역에는 민간부문의 인큐베이터 시설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인트존스 혁신센터(Saint John's Innovation Center), 바브라햄 바이오인큐베이터(Babraham Bioincubator), 바이오 사이언스 혁신센터(BioScience Innovation Center)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캠브리지 지역은 런던을 제외하고 벤처자금 지원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다. 캠브리지에서 운영되는 주요한 펀드들은 3I, 메를린 벤처스(Merlin Ventures), 아마데우스 캐피탈파트너즈(Amadeus Capital Partners), 캠브리지 리서치 이노베이션(Cambridge Research Innovation Limited), 지네닉스 펀드 매니지먼트(Generics Fund Management), 게이트웨이 펀드(Gateway Fund), 프리루드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Prelude Technology Investments Limited), TTP벤처스(TTP Ventures)등을 거론할 수 있다.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성공은 상향식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의 성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캠브리지 지역을 둘러싼 수많은 공적기구가 존재한다. 동부잉글랜드 개발청, 동부잉글랜드투자청, 광역 캠브리지 파트너십 등은 1990년 후반에 생긴 조직들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성공요인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성장은 관련기업들의 창업과 집적, 다양한 지원기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입지시설과 소프트한 지원정책, 다양한 네트워킹 조직 등이 서로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 대학은 과학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이며 ‘캠브리지’라는 브랜드로 흡인력을 유지하고 산학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고유의 대학운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기술 제 공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캠브리지에는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 캠브리지 네트워크의 때에는 ‘캠브리지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Cambridge Ideas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 슬로건은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캠브리지에 스피노프 기업의 설립과 창업이 활발한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기술력, 양질의 인력과 개인주의적 성향, 바클레이즈 은행의 대출정책, 대안적인 고용의 부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기업의 상대적인 부재와 자신의 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들의 습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7 파리(Paris)

프랑스 문화의 랜드마크!
퐁피두 센터(Center Pompidou)

2005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퐁피두 센터

• Mrs. Mireille Devals
 • Tel : +33 1 4478 4286
 • Fax : +33 1 4478 1340
 • mireille.Devals@cnac-gp.fr
 • www.centrepompidou.fr

진화하는 문화공간 퐁피두

- “진화하는 문화공간 퐁피두” 프랑스 파리, 그 속에서도 가장 고풍스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레지구의 한 편에 전위적 모습으로 등장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퐁피두센터가 1977년 개관 당시부터 표방했던 기본 이념이다. 외장의 과감한 생략으로 벽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철근 골조와 파이프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마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듯한 건물의 외양도 바로 ‘현재진행형’인 진화의 상징이었다.
- 2000년, 퐁피두센터는 탄생 23년 만에 첫 번째 진화를 실현함으로써 스스로 시간의 흐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존재임을 입증했다. 27개월에 걸친 대대적 수리·보수 작업을 거쳐 새천년 첫째인 올 1월 새 단장한 모습으로 재개관한 것이다. 수리비용으로만 5억7천6백만 프랑(약 8백70억원)이 들었다. 처음 건물을 짓는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9억9천3백만 프랑이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변화’에 쏟아 부은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퐁피두센터를 기대한 사람은 이내 실망하게 된다. 페인트만 다시 칠해 색깔이 좀더 산뜻해졌을 뿐 겉모습의 변화는 전혀 없다. 퐁피두센터는 이미 역사적인 건축물이 됐다. 역사적 기념비의 외관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파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

- 처음 설계자인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함께 보수 책임을 맡은 장 프랑수아 보댕은 “줄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맥만 고치는 것이 보수작업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외보고서

- 진화라는 것이 그렇듯 개선의 여지가 생긴 부분만 바꿨다는 얘기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풍피두센터가 출범 20여년 만에 파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데서 비롯됐다.
- 당초 하루 5천명의 방문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문을 열자마자 하루 평균 2만5천명이 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리를 위해 잠시 문을 닫기 전인 95년까지 풍피두센터를 찾은 사람이 1억4천5백만 명에 이른다.
- 매년 8백만 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다. 풍피두센터 입장객 행렬은 해마다 길어졌고 관광객들까지 가세하는 오후에는 입장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기 일쑤였다.
- 이 같은 동맥경화를 치료하기 위해 풍피두센터의 두 핵심 부문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정보 도서관의 접근로를 분리하는 수술이 시행됐다. 행정부서는 아예 다른 건물로 이전했다.
- 이와 함께 도서관 열람석을 2백석 늘려 총 2천석 규모로 확장했으며 미술관 내부도 작품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간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꾸몄다.
- 특히 도서관의 경우 단순한 열람 기능에서 탈피, 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4백여 대의 최신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설치, 인터넷 검색과 각종 자료의 열람을 가능케 했으며 위성방송 시스템을 이용, 세계 10여 개국의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컴퓨터와 모니터는 삼성이 기증하였다는 설명이다.



장소·문화마케팅의 메카

- 미술관과 도서관 외에 영화와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위한 공간은 모두 지하 1층으로 한자리에 모았다. 이 같은 변화는 풍피두센터의 혈액 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재개관을 기념, 일반에 무료 공개한 1월 1, 2일 이틀 동안 풍피두센터를 찾은 8만 여명의 관람객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었다.
- 풍피두센터의 개조·보수는 새천년에 대비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가장 큰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그것은 풍피두센터가 21세기 문화대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의 문화 첨병이기 때문이다.
- 루브르가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는 박물관이라면 풍피두는 미래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늘 열려있는 공간이다. 샤갈과 피카소 등 대가의 상설 전시 외에도 현대 예술가들의 개인전, 발표회가 끊

임없이 열리고 현대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와 퍼포먼스 등이 매일같이 행해진다.

- 예술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예술 강좌 역시 연일 만원이다. 관광 명소로서도 한몫 단단히 해 풍피두센터 앞 광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젊은이들로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 이처럼 풍피두센터가 파리를 대표하는 현대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자 21세기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기업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 이번 공사에서도 이브 생 로랑이 전시실 개조를 위해 1천만 프랑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기부금이 5천만 프랑에 달했다.
- 하지만 풍피두센터도 에펠탑이나 몽마르트르 언덕의 사크레 콰르 성당처럼 개관 당시에는 거센 비난에 부딪혔다.
- 파리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이 대단한 보수적인 프랑스인들에게 짓다만 창고 같은 모양의 파격적인 건축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어찌면 당연했다.
- 하지만 이제 풍피두센터가 “시대의 필요에 맞게 끝없는 변화를 추구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파리가 과거에만 집착하는 도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장 자크 아야 공 관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8 뱅생(Vincennes)

전통과 개발이 함께 하는 곳! 뱅생의 Market Town 개발 전략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Vincennes시청

- Ms. Acoca
- 5 rue Eugene-renaud, 9434 Vincennes
- Tel : +33 1 4398 6500
- Fax : +33 1 4398 6628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개발계획

- ▶위 치 : 프랑스 파리 동부 외곽지역
- ▶인 구 : 43,937명



- 뱅생 도시개발계획은 6개의 지역(zone)으로 나뉘어서 지역의 미래 발전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의 뱅생 숲과 전통 건축양식 등이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 구상되고 있으며 시 지역의 2/3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 이 도시의 랜드마크인 뱅생 성은 유럽의 어느 성보다도 지하철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규정이 적용되어 성 50미터 이내에 술집, 네온사인, 위성용 안테나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 뱅생의 도시개발사업은 DATAR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contract de pays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개발 특징

- 뱅생의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다. 건설, 리모델링 사업 등 모든 개발 관련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들은 지역 의회를 통과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 시민이 거부할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뱅생시는 ▲도시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고려 ▲도시의 미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욕구 반영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 뱅생의 도시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홍수, 지진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9 파리(Paris)

시민 품으로 돌아간 자동차 공장
시트로엥(Citroen)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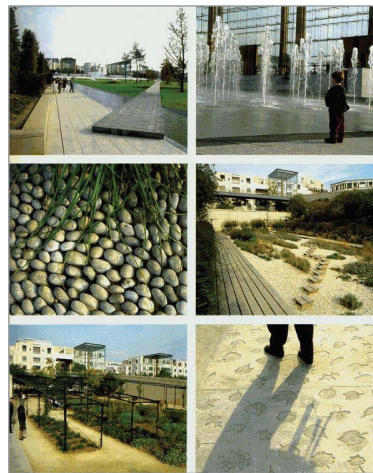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5시 시트로엥공원

프랑스 예술의 자부심이 있는 매력적 공원

• 1993년에 오픈한 앙드레 시트로엥 공원은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회사 시트로엥의 설립자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으로 자동차의 공장이 있었던 세느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다. 넓은 잔디밭과 비스듬히 가로 지르는 축선, 수로와 작은 주계 정원들, 여러 개의 온실들 그리고 다양한 신화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도시공원이면서도 프랑스 정원의 차림새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프랑스 예술의 자부심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듯한 매력적인 공원이다.

• 이 공원의 구상은 시트로엥 자동차 회사의 본사의 이전계획과 함께 1970년대 초부터 파리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파리에 의해 23만㎡의 부지가 매입 되고 나서 1979년 지구계획을 실시하여 세느강변을 면한 14만㎡의 공원이설 면적을 중심으로 한 주거시설, 상업, 업무시설의 도시계획지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국제현상공모로 설계안 당선

• 1985년 파리는 21세기를 위한 공원의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질 꼬레망과 알랭 프로보의 설계안을 당선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선된 두개의 안은 매우 유사했으며 결국 공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끌레망은 북동쪽을 프로보는 남서쪽을 맡아 진행하였다. 파리가 요구한 설계조건은 “미적으로 파리가 프랑스와 외국에 미친 영향을 반영할 것과 무엇보다 정원의 역사에 현대적인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the aesthetics of this park should reflect the influence of Paris, both in France and abroad, and above all should imprint upon garden history a hallmark truly representative of contemporary trends.”) 아울러 공원이 근린거주자를 위한 장소이면서 현대 메트로폴리스에 어울리는 스타일의 통일성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a park that offered a pleasant setting for the residents of the neighborhood but also would possess the stylistic unity worthy of a great modern metropolis.”)

• 두명의 조경가(Paysage)는 서로 협력하여 균형 있는 계획안을 확립하였는데 질 꼬레망은 건축가 베르제와 협력하여 변화정원(Jardin en Mouvement)과 7개의 연속 주계정원, 2개의 대온실과 6개의 소온실, 페르시안 분수광장을 설계하였다. 알랭 프로보는 건축가 비귀에와 같이 검정빛 정원(Jardin Noir), 흰빛 정원(Jardin Blanc), 잔디밭과 수로, 물의 정원인 님페와 님프, 운하(Canal)를 조성하였다.

공간 구성의 기본 컨셉

• 앙드레 시트로엥 공원의 기본적인 주제는 4개로 솜씨(Artifice), 건축(Architecture), 움직임(Movement), 자연(Nature)인데 이러한 주제는 공원의 한쪽 끝부분인 도시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해당하는 세느강에 도달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 공원의 초점은 유리나 나무기둥으로 만들어진 2개의 대형온실이 있는 기단(podium)에서 장방형의 잔디밭을 지나 세느강으로 향한 400m의 비스타를 형성하도록 집중된다. 잔디밭의 서쪽은 물의 정원 님프와 님페(물의 요정들이 기거했던 암굴을 상징하는 7개의 건축구조물 입)를 배치하고, 동쪽으로는 제각기 다른 6개의 색깔로 명명된 연속정원, 변화정원이 펼쳐진다. 그 동쪽 공원의 경계에는 유리구조물이 서있다.

• 끌레망이 만든 연속정원(초록빛 정원, 은빛 정원, 푸른빛 정원, 붉은빛 정원, 오렌지빛 정원, 노란빛 정원)은 원예적인 기술을 집약하여 나뭇잎의 색깔과 질감, 열매와 단풍의 색깔 등을 섬세하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극적으로 대비시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정원들이며 변화정원은 야생식물들의 자발적인 야생의 질서에 의존하여 다듬어진 장소로 시간에 따라 끊임

해외보고서

임없이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정원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 프로보의 흰빛정원은 흰색의 육중한 석벽과 흰색의 바닥 그리고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빛의 존재를 통해 마치 수도원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곳이다. 검정빛정원은 모든 빛을 강하게 흡수하듯 노란색으로 아래로 꺼져 들어간 정원으로 긴 호흡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 전체적인 공간구성은 기하학적인 평면과 대칭구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은 동선체계와 전체 공간의 흐름을 알기 쉽게 질서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나뉘어진 공간에 물, 색, 질감, 형태 등을 조화있게 채워 넣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시사점

- 이처럼 시트로앵 공원은 대도시 주변의 산업지구의 재개발 사례로 등장하여 상징적이고 신화적이며 감각적인 공간의 구성과 고급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공원의 울타리 없이 도시 속으로 연장되어 인공과 자연의 대비를 통한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많은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중첩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앙드레 시트로앵 공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한 주제와 정원공간을 담은 도시공원의 모델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여 진다.
- 앙드레 시트로앵공원은 지난 20년 동안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인 일드프랑스에서 새로 문을 연 1천개 공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도시 팽창과 지역이기주의로 수도권의 녹지가 무차별 훼손되자 지난 76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수도권지방자치단체협의회인 일드프랑스 지역협의회 산하에 수도권 녹지청을 설립해 그린 벨트 설정, 녹지공간 복원 등의 일을 맡겼다.
- 현재 23명의 조정·재정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수도권 녹지청은 80년대 말부터 일드프랑스의회에서 돈을 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녹화사업을 지원하는 노릇을 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들의 협력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0 리옹(Lyon)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리옹 테크노 폴

2005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Lyon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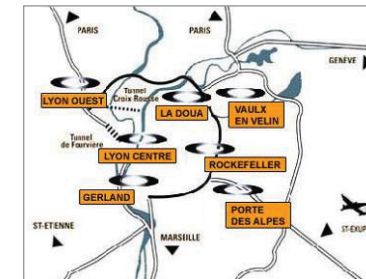
리옹 테크노폴

• Isabelle Bazin
• Tel : +33 4 7210 3068
• isabelle.bazin@mairie-lyon.fr
• www.en.lyon-france.com

• Madame Cécile Bouscatel
• Tel : +33 4 7210 3120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 프랑스에서 지방 분산의 역사는 1955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리와 그 주변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여 파리권의 인구집중 및 혼잡을 저지하는 한편, 경제적 침체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Mendes France 정부에 의해 탄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파리권에 입지하는 제조업에 대해 입지허가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이외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련 공공기관들의 집중완화를 정책적 목적으로 채택하였다.
- 이후 산업 및 인구의 지방분산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 꾸준히 추진되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여 년간 25,350명(일자리)이 지방으로 이전한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파리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의 도입은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국토불균형의 시정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방낙후도시의 발달,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 지방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보다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이전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 1990년 들어 정부(크레송 총리)는 파리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재차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동년 11월 국토개발장관회의(CIATD)에서 지역



해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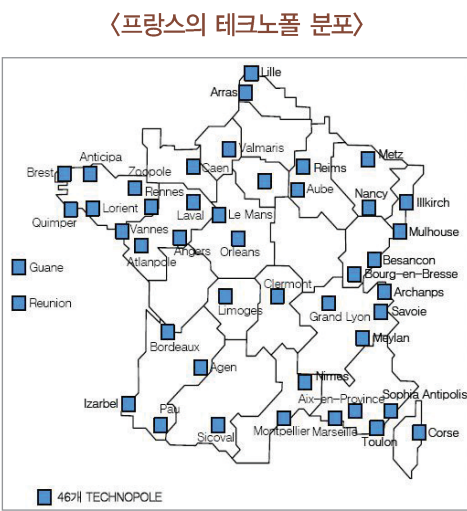
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시설, 공기업들의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0년까지 총 30,000명의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의 지방으로의 이전추진과 더불어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은 총리의 특별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에 입지하도록 강제되었다. 1991년 10월 3일에는 지방분산 정책에 대한 새 대책을 발표하여, 파리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 공공기관 정원의 5%를 3년 안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가 지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 특히, 특정 정부부처에 속하는 이전대상 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부처에 속하는 다른 기관이 대체하는 경우에만 현 입지에 존치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지역 특성화 강화 위해 기능별로 이전

- 프랑스 공공부문 지방분산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먼저 이전추진방식에서 지역의 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각 기능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기관의 기능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별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유사기능의 집적사례》	
이전기관	이전지역
국립스포츠 박물관 국가대학스포츠연맹 국가체육연맹	일드프랑스 생드니
항법기술관리소 선박사고조사부 해양기술연구소 해양항공기술연구소	브레탄느 브레
국립과학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국립농학연구소 물리분자센터	프로방스알프스 마르세이유



- 이와 관련하여 성격이나 소속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관련기능을 일정지역에 집적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일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능별로 분리될 수 있는 소규모 기능 군으로 분리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즉, 동일기관 내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하기 보다는 이전을 통해 타 기관의 기능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기관 내 기능별로 분리하여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였다.

《프랑스 주요 테크노폴 이전 공공기관》

테크노폴명	주요분야	이전공공기관명	테크노폴명	주요분야	이전공공기관명
Atlanpole (Pay de Loire; Nantes)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농업	국립농학연구소(10) 국립보건의학연구소(10) 중앙토목기술연구소(90) 법연구소(13) 외국인연구소(20)	Rennes Atlantique (Bretagne; Cesson Sévigné)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바이오, 기계	국립과학연구소(41) 국립보건의학연구소(15) 국립농학연구소(20)
Biopole Clermont-Limagne (Auvergne; Saint-Beauzire)	농업, 바이오	농업기계화연구소(300) 국립농학연구소(35) 국립보건의학연구소(5)	Sicoval Technopole Toulouse Sud-est (Midi-Pyrénées; Labège)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바이오	국립과학연구소(13) 국립보건의학연구소(15)
Bordeaux Technopole (Aquitaine; Bordeaux)	정보통신, 전자, 기계, 바이오	국립과학연구소(55) 국립보건의학연구소(14) 국립인구문제연구소(15) 국립산업연구소(180)	Synergia (Basse Normandie; Caen)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 바이오	국립과학연구소(120) 국립농학연구소(5) 국립보건의학연구소(8) 산림통계연구소(100)
Ester (Limousine; Limoges)	세라믹, 유전공학	농업개발청(300), 국립농학연구소(3)	Technopole Brest-Iroise (Bretagne; Brest)	에너지, 소프트웨어, 바이오	건강진료소(7) 국립과학연구소(44) 해양기술연구소(63)
Grand Lyon Technopole (Rhône Alpes; Lyon)	정보통신, 바이오	국립수의학교(30) 국립과학연구소(179) 국립보건의학연구소(34) 국립농학연구소(7)	Technopole Nancy Brabois (Lorraine; Nancy)	유전공학, 바이오, 정보통신	국립과학연구소(113) 국립농학연구소(5) 국립보건의학연구소(3)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13)
Metz Technopole (Lorraine; Metz)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7) 의학정보연구소(75)	Technopole Lille Metropole (Nord Pas de calais; Villeneuve D'Ascq)	정보통신	국립과학연구소(71) 국립보건의학연구소(24) 교통및안전연구소(20) 해양연구소(6) 국립산업진단연구소(100)
Montpellier Mediterranee (Languedoc Roussillonne; Montpellier)	정보통신, 바이오, 농업	국립과학연구소(51) 전략연구소(174) 국립농학연구소(10) 국립보건의학연구소(41) 해외과학기술연구소(25)	Technopole Marseille-Provence (PACA; Marseille)	기계, 에너지, 정보통신	국립과학연구소분소(129) 분자물리연구소(100) 국립보건의학연구소(15) 국립농학연구소(7)
Orleans Val de Loire Technopole (Centre; Orleans)	세라믹, 소프트웨어, 바이오	해외과학기술연구소(48) 국립과학연구소(52) 국립농학연구소(7) 프랑스환경연구소(30)	Toulon Var Technologies (PACA; Toulon)	바이오, 소프트웨어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30) 국립과학연구소(15) 국립보건의학연구소(9)
Parc d'Innovation d'Ilk Kirch Strasbourg Technopole (Alsace; Strasbourg)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바이오	국립과학연구소(21) 국립행정학교(130)	ZIRST (Rhône Alpes; Meylan)	정보통신, 바이오, 소프트웨어	국립과학연구소(44) 국립보건의학연구소(10)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20)

주 : * '이전 공공기관명'에는 테크노폴이 입지한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포함, ()는 이전인원수

해외보고서

이전 기관과 테크노폴의 연계 발전

- 지역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추진은 프랑스 각 지역에 조성된 테크노폴(Technopole)과 공공기관 이전의 연계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테크노폴은 지역의 과학·기술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대학들과 합동으로 개발되었는데, 마르세이유(Marseilles), 메츠(Metz), 낭트(Nantes) 등에서는 쇠퇴하는 도시의 재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고, 일드프랑스, 몽뎬에(Montpeilles), 소피아안티폴리스(Sophia-Antipolis)등에서는 새로운 산업공간의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 연구개발기관은 테크노폴의 개발초기단계와 정착단계에서 중견 기업,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등과 더불어 중요한 유치대상이 되었다. 특히 지역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하도급 기관, 지역기업 등과 지역 내 네트워킹의 구축이 중요시 되었다.
- 각 지역에 조성된 테크노폴은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거점을 구축하고 중앙의 관련 과학연구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이 크다. 이전한 과학연구기관들은 해당 지방 과학연구기관들과의 협력 하에서 각기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테크노폴을 건설하여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지역화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서, 툴루즈 테크노폴은 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기관을 이전시켜 항공분야 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남부의 관광지대인 랑그독 루실롱 지방은 해양/수산, 관광레저산업에 특화된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중심도시인 몽뎬리에에 조성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테크노폴 건설과 이전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을 연계시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연구소, 국립농학연구소, 국립보건의학연구소 등의 자연과학계 국가 연구기관이 다수의 테크노폴로 분야별로 분리하여 이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직원이 약2만5천명에 달하는 국립과학연구소는 낭시, 리옹, 마르세이유 등 22개 주의 중심도시에 분소를 두고 있으며, 특히 20여개 테크노폴에는 연구실험실 단위로 분리 이전하여 지역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연구 기능 강화의 계기 마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과 지방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능은 교육 및 연구기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기능의 지방이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첫째, 교육기능의 지방이전은 교육기회를 찾아 파리로 향하는 인구이동의 흐름을 완화시켰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육을 위해 지방 학생들이 파리로 이동하는 비율이 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 고등교육기회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파리지역의 사회적 인구증가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학부뿐만 아니라 석사이상 고급 전문교육단계에서도 파리로의 인구 이동 흐름이 발생하고 않고 취업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교육기회와 취업기회 분산의 동시 추진은 파리로의 인구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수도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인구정착 효과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주요도시 인구변화〉

(단위 : 명)

주요도시		1962	1968	1975	1982	1990	1999
11개 주요 도시 (B)	파리권(A)						
	파리	7,838,669	8,536,722	8,981,016	9,057,844	9,469,563	9,644,507
	마르세이유	1,012,029	1,190,437	1,296,751	1,330,323	1,315,373	1,349,772
	리옹	1,004,540	1,145,906	1,240,901	1,247,311	1,295,385	1,348,832
	릴르	852,734	914,864	9661,983	963,548	978,794	1,000,900
	니스	534,532	627,246	722,234	780,485	855,969	888,784
	툴루즈	392,777	481,993	560,165	588,224	666,941	761,090
	보르도	527,438	588,436	636,339	661,205	712,358	753,931
	낭트	361,606	407,697	456,082	468,082	496,078	544,932
	툴롱	317,472	376,392	426,390	462,456	494,553	519,640
	두에-렝	548,443	561,979	547,878	534,484	527,465	518,727
	스트라스부르	316,203	351,265	375,987	385,119	403,331	427,245
	그르노블	264,121	335,265	392,082	405,108	405,108	419,334
A/B		1.28	1.22	1.18	1.16	1.16	1.13

- 둘째, 지방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즉 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이전지역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립연구소 등 고급연구기능의 지방이전은 이전까지 고급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했던 지방기업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정보 공급 및 신기술을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이 지방에서 공급됨으로 첨단산업 분야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방입지 조건이 마련되어 새로운 산업유치가 가능해 지고 있다. 또한 유관산업 및 동종 산업의 발달로 집적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들 간의 학습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혁신체계 형성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보고서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의 수단

-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사례의 가장 주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파리의 집중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1950년대 이래 계속 추진하여 왔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지방 분산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파리에 몰려 있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방도시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권내에 공공기관 등 고차기능의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으로의 균형화 노력을 일회적인 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상시적 전담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이전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프랑스 사례의 경험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이전을 단순히 중앙에 입지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과 지역에 새로운 중앙기관의 유치라는 단순한 인식의 극복이 요구된다. 즉 공공기관은 그 활동이 민간부문의 활동을 창출하고 유치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서 국가적으로 지역불균등발전을 지속시킨 측면이 있다. 이전을 통한 효과를 충분히 실현시키려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전략적 요소를 잘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임준홍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권태목 | 오사카대학 박사과정

우리 가슴 속에 철도는 추억과 설렘이 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먹던 추억과 은하철도999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것 역시 기차이다. 이처럼 기차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향수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열차 운행의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다.

